



로드FC 053 제주, 결전의 날 밝아온다

18일 한라체육관 권아솔·만수르 빅매치 등 10경기 제품 르 밴너 출전 무산... 제주출신 '4인방' 데뷔전

로드FC 053 제주대회가 18일 한라체육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메인 이벤트는 한국 격투기 사상 최대의 이벤트라고 불리는 '100만불 토너먼트 최종전'. 라이트급 챔피언 권아솔(33·팀 코리아)이 5경기 연속 피니시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한 만수르 바르나위(27·프랑스)와 격돌한다. 2년 5개월 만에 경기에 나서는 권아솔이 만수르를 꺾고 챔피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격투기팬들의 이

목이 제주로 집중되고 있다.

다만 K-1 레전드 제품 르 밴너(47·프랑스)가 훈련 중 허리 부상으로 로드 FC 데뷔 무대가 무산됐다. 그의 상대였던 아오르꺼러(24·중국)는 현직 가수로 활동 중인 일명 '싱어송 파이터' 허재혁(34·아이비 짐)와 맞선다.

여기에 '소방관 파이터' 신동국과 일본 하야시 타모츠의 2차전이 기대된다. 임동환과 김태인의 신홍강자를 가

리는 맞대결은 물론 '근자각 파이터' 박형근과 '겉 없는 녀석들' 출신의 양지호의 대결구도도 볼 만하다.

제주출신 4인방도 프로무대 데뷔전 준비가 한창이다. 제주의 만형 박석한(35·팀싸우쿠다)과 그의 제자이자 같은 팀 소속 신지승(23), 제94·95회 전국체육대회 킥복싱 2연패에 빛나는 윤태영(23·팀더킹)과 주짓수 챔피언으로 홍일점 양희조(26·락온) 등이다.

로드FC 053 제주대회 강연식 대회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이번 대회에 제품 르 밴너의 출전이 무산돼 아쉽지만 중국에서 1000여명의

격투기 팬들이 아오르꺼러를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예정"이라며 "국내는 물론 세계 30개국에서 생중계 되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로드FC 053 제주대회에 앞서 주요 선수들이 속속 격전지인 제주를 찾았다. 만수르와 아오르꺼러가 제주공항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어 도착한 권아솔 역시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17일에는 선수 계체가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이뤄진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강다민 장애학생체전 역도 3년 연속 3관왕 김수영 불링 개인전 우승... 3일째 합계 메달 16개 선전



강다민

날 익산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진 육상 트랙 남고부 멀리뛰기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마지막 6차 시기에 자신의 종전 기록을 갱신하며 깜짝 메달을 선수단에 선물했다.

고수완(제주고)·임한민(제주영송학교) 조는 배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호흡을 맞춰 동메달을 합작했다.

이로써 제주도선수단은 대회 3일 동안 메달 16개(금 9·은 3·동 4)를 획득하며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백금탁기자

김수영(노형중) 선수는 이날 마스터링센터에서 열린 불링 TPB5-11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특히 제주학생으로는 처음으로 전국장애학생체전 불링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새로운 유망주로 급부상했다.

김현곤(제주영송학교) 선수는 이

"실업 축구 최강팀 가리자" 내셔널축구선수대회 개막 19일부터 내달2일까지

내셔널리그 최강팀을 가리는 선수권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서귀포시에서 열린다.

서귀포시는 '2019 내셔널축구선수권대회'가 오는 19일 개막경기를 시작으로 6월 2일까지 강창학종합경기장에서 1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실업축구연맹이 주관하며 서귀포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내셔널리그 8개팀이 참가한다. 4개팀을 2개조로 편성해 예선을 거쳐 조별 1·2위팀이 4강에 진출하고 준결승전부터는 단판승부로 우승팀을 결정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오는 26일 오전 효돈축구공원에서는 서귀포시 관내 유소년 축구클럽을 대상으로 내셔널리그 주요 선수 및 코치진이 축구클리닉을 진행해 서귀포 지역 축구 꿈나무들의 기술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로 서귀포지역 스포츠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유엔비즈 및 네이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개막전 및 결승전 등 주요 경기는 에스티엔(STN)스포츠채널과 케이씨티비(KCTV)제주 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산악인 고 오희준씨 12주기 추모제가 16일 서귀포시 토평동 오희준 추모공원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헌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태윤기자

산악인 고 오희준 12주기 추모식 열려 16일 서귀포시 토평동 오희준 추모공원에서

서귀포시 토평동 출신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0개봉을 단 한번의 실패 없이 등정한 의지의 산악인 고 오희준씨의 12주기 추모제가 16일 오희준 추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현학봉(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지역주민, 산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산악인 고 오희준의 넋을 기리고 생존 시 등반 및 탐험활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고 오희준씨의 형인 오희삼씨는 "발서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오희준) 잊지 않고 이자리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유족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히 올해는 오희준 추모공원에 정원

과 상징물 등이 조성되며 오희준 추모공원이 모든 분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됐다"고 말했다.

고 오희준은 1999년 제주 산악인 최초로 8000m급 해외원정대 일원으로 참여해 초오유봉 등정을 시작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0개봉을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오르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와함께 44일간 무보급 최단기간 남극점 도달과 북극점 도달함으로써 세계에서 일곱 번째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차세대 한국 산악계를 이끌어갈 인물로 꼽혔던 그는 2007년 에베레스트 남서벽에서 코리언루트 개척에 나섰다. 눈사태를 만나 37세의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이태윤기자



'은퇴' 이상화, 북받치는 감정 '빙속 여제' 이상화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은퇴식 및 기자회견에서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캡카 PGA 챔피언십 우승 후보 1순위 전문가 11명이 우승 예상... 압도적 1위

'메이저 사냥꾼' 브룩스 캡카(미국)가 제101회 PGA 챔피언십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됐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1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파밍데일에서 개막하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을 앞두고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우승 전망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였다.

17명 가운데 캡카의 우승을 예상한 전문가가 무려 11명으로 압도적 1위였다. ESPN의 마이클 이브스 기

자는 "최근 2년간 메이저 대회에서 캡카보다 좋은 성적을 낸 선수는 없다"며 "메스페이스 블랙 코스와도 잘 맞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과 70에 전장 7459야드로 긴 이 코스에서 장타자 캡카의 위력이 더 크게 발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캡카는 이번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평균 드라이버샷 비거리 308.1야드로 전체 14위에 올라 있다. 지난 시즌에는 313.4야드로 8위였다. 연합뉴스

ESPN닷컴의 피터 로런스 리들 기자 역시 "이 코스에서 캡카의 드라이버가 맞기 시작하면 그를 꺾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코스가 젓어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캡카가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캡카는 2017년과 2018년 US오픈, 지난해 이 대회 등 최근 7차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 3회, 준우승 1회의 성적을 냈다.

캡카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선수 역시 장타자로 유명한 토니 피나우(미국)다.

세 표를 얻은 피나우는 이번 시즌 PGA 투어에서 311.2야드로 평균 비거리 6위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

축 임
취 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김완석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고등학교 운영위원 일동
제주고등학교 학부모회 일동

축 급
진 급
육군 소장

고태남

육군 소장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읍초등학교 30회 동창회

축 상
수 상
어버이날 효자효도상

문영철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시회장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형제 가족일동
용사회 회원일동
어영마을 주민일동

축 상
수 상
2019 글로벌 新한국인 대상

김문수

2019 글로벌 新한국인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처가 가족일동